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24.(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과장	김혜수(044-203-3241)	담당자	사무관 김동하(044-203-3222) 주무관 백진아(044-203-3247)

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 전달해 독서습관 키운다

- 400개 부대에서 온라인 독서 지도 등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8월부터 국방부(장관 서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함께 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400개 군부대에서 독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신병 입소식에 맞춰 독서 안내책(가이드북), 독서노트,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신병 독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4일(화), 강원도 전방 28사단에 입소하는 신병 270여 명을 시작으로 3개월간 육·해·공군 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병들은 입소 후 2주간 훈련 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독서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책꾸러미' 전달을 통해 격리 기간 중 늘어난 신병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육·해·공군·국방부 직속 400개 부대 대상 온라인 병영독서 지도 펼쳐

아울러 문체부와 국방부는 독서에 대한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영독서 지도 활동'도 지원한다. 사전에 나눠준 책을 장병들이 읽고 나면 독서 전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장병들의 독서를 지도한다. 올해는 2020년에 비해 50개 부대가 증가한 400개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 안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

으로 지도한다. '병영독서 지도 활동'은 독서를 위한 공간과 시간이 제약된 환경에 있는 장병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병영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병들의 독서습관을 키우고 소통하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10년 동안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병사들이 군에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장병들이 독서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소통문화를 확산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김동하(☎ 044-203-3222) 또는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송영철 국장(☎ 02-465-541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